

## 광주일보 제3기 독자위원회 7차 회의

일시: 2009년 12월 11일 오후 5시 장소: 광주일보 16층 회의실

광주일보 제3기 독자위원회 7차 회의가 지난 11일 오후 5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본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했다. 본사에서는 김일환 여론매체부장이 참석했다.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2개월 동안 발행된 본보 지면을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내년 광주일보가 지역사회에 미래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고치고 지향해 나가야 하는지 아이디어 등을 제안했다.

# 지방선거 기초의원 후보까지 철저한 검증 앞장을

이묘숙 (송은갤러리 관장)



실속재테크 기사에

알짜 정보 없어 실망

김현석 (광주대 일본어과 교수)



교통문화 기획시리즈

참신한 시도 돋보여

박순형 (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즐거운 한자·영어 배포

독자위한 배려에 박수

임선숙 (변호사)



홈페이지 빨라져 좋아

과도한 광고 주의를

▲ 이묘숙(송은갤러리 관장)=올해 초에 비해 선정적인 기사가 많이 줄어드는 대신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특히 1면에서 영산강 샛강문제나 둑구장 문제에 대해 꾸준하게 다뤄 시도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면의 '착한 운전 사고 제로' 기획시리즈의 경우 15차례에 걸쳐 교통문화에 대해 지적해주는 등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일자 7면에 '광주 교통문화 확 달라졌다'는 기사가 게재된 이후에 4일자 7면에서 '차량 꼬리를 끌고 싶하다'는 기사가 나간 것은 아이러니 했다. 교통문화가 확 달라졌다는 데 뛰어나게 차량 꼬리를 끌고 교통 체증이 심하다는 기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지난 10월17일 3면 '광주 C여고 교사 학생 성추행' 기사에선 제목에 성추행의 행위까지 세세하게 적어주는 건 과했다고 본다.

▲ 김현석(광주대 일본어과 교수)=이 관장이 말씀하신대로 '착한 운전 사고 제로' 기획 시리즈는 올바른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매우 좋은 기사라고 생각했다. 특히 전국에서 사고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광주가 뽑혔던 만큼 광주일보가 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석면 문제 역시 광주일보에서 많은 보도를 하고 있다. 지난 7월30일자 사회면과 10월6일자, 그리고 지난 8일엔 사설에서 언급해주면서 심각성에 대해 잘 지적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석면 문제의 올바른 해결법을 위해 광주일보가 기획 시리즈로 다뤄줬으면 한다.

▲ 박순형(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지난 4일자에 1면과 3면에 걸쳐 경영현안과 관련

한 인터넷 패널 설문조사 기사가 나왔다. 패널을 이용한 설문조사는 바람직하나 응답률이 200명 중에서 116명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속속적으로 패널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뤄져야 한다. 또 3면에 이어진 기사에서 너무 글 위주로 가다보니 가독성이 떨어졌다. 표나 그래픽을 이용했다면 훨씬 보기 좋았을 것이다.

지역현안 문제인 4대강 사업이나 나주혁신도시 사업, 광주공항 문제 등에 대해 듣고 있다보면 어떤 주장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에 대해 광주일보만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 임선숙(변호사·전 광주변호사협회 공보이사)=광주일보 홈페이지 개편 이후 속도도 빨라지고 검색기능이 좋아졌다. 현대 과도한 인터넷 광고는 오히려 광주일보의 격을 떨어뜨리게 만드니 자제했으면 한다.

지난 11일자 1면 '선거판 너무 일찍 달워진다' 기사는 대학교수나 시민단체 등이 지방선거에 참여해 과열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런 기사는 차치 정치에 무관심하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 언론은 시민들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해 정책 경쟁이나 정당의 역할을 기능화·활성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 권순석(화순전남대병원 전남지역 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내년에는 광주·전남지역의 비전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획기사가 많

아였으면 한다. 광주일보가 다른 일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건 의료분야의 기사비중이 낮거나 단신 위주로 보도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의료비가 개인생활이나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건강이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등 갈수록 건강 문제가 독자에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기사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중이 더 커졌으면 한다.

▲ 이묘숙=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반해 광주일보는 경제에 대한 지면 할애도 적다. 그래서 지난 2일자 '실속재테크·주가지수 연동예금' 기사를 보고 반가워 관심있게 읽었는데 실망했다. 정확한 분석과 정보 제공보다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실속재테크라는 명칭에 맞게 '재테크시 이 것만은 피해라' '가입시 꼭 따져볼 것은' 등과 같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정보제공에 관심을 쏟았으면 한다.

▲ 김현석=오자에 대해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부 기사에서 인명과 직책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본어를 배우는 코너에 원어가 잘못 쓰여진 경우도 있었다. 신문은 공기이니만큼 오발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 지역 현안 광주일보 입장 제시 바람직

### '선거 과열' 기사 정치 무관심 부를 우려

▲ 박순형=16면 피플앤행리프면의 경우 불우이웃을 돋는 온정 사진이 자주 들어가 좋았다. 또 광주일보가 즐거운 한자에 이어 즐거운 영어도 독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이는 독자 즐매에 큰 도움되는 것은 물론 경제가 어려운 현 시기에 과감한 시도로 보여 대단하다. 어려운 시기 다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애쓰는데 반해 광주일보의 독자들을 위한 용기있는 시도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 류동훈(광주·전남행복발전소 문화도시일자리사업단 본부장)=문화면을 보면 서울에서 활동하는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가수나 연예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콘서트나 이벤트 행사를 하는 내용을 자주 본다. 물론 TV에서만 볼수 있는 서울 연예인들을 직접 볼수 있는 기회이니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소식임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며 중앙무대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중가수들과 연예인들이 많이 있다. 이들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역의 복지기관을 찾다니며 봉사공연을 많이 한다. 또한 5·18 문화센터나 문화예술회관 등을 빌려서 콘서트를 개최한다. 하지만,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관중석을 채우기가 쉽지 않고, 광고비 마련도 만만치 않아 보통 콘서트를 한번 하고 나면 살림이 험청한다고 한다.

우리는 서울 연예인들에게 보내주는 관심을 이제는 우리 지역의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기울여야 한다. 광주일보가 지역 대중가수들의 콘서트나 화가, 연극인들의 행사에 지역민들이 흥미를 끌 수

권순석 (화순 전남대병원 교수)



건강 관심 늘어나는데

의료 기사 비중 낮아

류동훈 (문화도시일자리 본부장)



지역서 고군분투하는

가수들에게도 관심을

문상필 (북구장애인복지회 이사장)



동네 정치·생활정치에

더 많은 지면 할애를

있는 내용을 찾아 부각시켜 성공으로 이끄는데 함께 해야한다.

▲ 문상필(광주시 북구 장애인복지회 이사장)=내년 지방 선거에 있는 만큼 광주일보에서 지방선거 후보들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광주의 미래비전을 위해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제시나 의견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이 부분에 맞춰 검증해야 한다.

특히 광역시장이 중요하긴 하지만 구의원이나 시의원도 뜻지 않게 강조되어 한다. 너무 시장 후보들에만 관심이 치우친다면 동네 정치, 생활 정치가 소외받게 되기 때문이다. 광주일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하며 내년엔 소통하고 화합하는 광주민들기에 일조해야 한다.

/정리=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그 명성, 그대로, 땀과 열정과 합격의 명예가 함께합니다.  
2010년 시험 합격률을 위한 최선의 선택!

## 9급 공무원 강좌

특집  
• 2010년 공무원 정원 4,800여명 증원,  
• 2011년까지 세무직 1472명 증원,  
• 2013년까지 소방직 8000여명 증원 예정

"이제 대세(大勢)는 '무등고시학원'입니다"

[정규종합반, 단과반, 문제풀이반]

일반행정직/세무직 거울방학 대개강  
출판자/판세직 1월 4일(월)

9급교육행정직 2010 대비공개설명회 : 12월 9일 / 12월 26일 15:00 본관 201 강당  
당일 공개설명회 참석 후 등록시 공봉파목 교재 무료제공

10급 기능직 특채 및 일반직 전환 대비

\* 2010년 전직, 승진시험 및 10급 기능직 특채 대비 \*

박찬걸, 임강석 교수팀, 연중상설 강의 개설

• 각 과목별 8주완성  
• 약간반, 주말반 동시 개강

개강 및 공개 설명회  
1월 9일(토) 14:00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위치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222-4560

## 광문공인증개사

062-365-1920

모델 임대 매매 전문

교환

신축 무인텔 금임대

목포→

무인텔 월매출 5천이상

모델, 사우나,

4억5천에 월 1,500만원

주차장, 세차장

신축모델 부지다릉확보!

→350평, 건평 600평

일반모델 월매출

월순소득 2,000만원

5천이상

이상 확보

교환조건

→모델, 땅, 토지, 임야

금 매매가 15억원

해남군

은행대출 8억

→점 모델 매매가

실투자금 7억 OK

5억7천

전국 모델 임대 매매 전문

월순소득 1,500만원

→손님이 와글와글하고  
알짜배기 모델!

이상 확보!

순천 모델 임대

모델 임대사입

보증금 3억 월 900만원

3~4억 투자하시면

목포 해안도로쪽 모델

매월 1,000만원 이상

금 매매 다량 확보!

소득 확보!

등기필 100%

## 동북아 경제 중심지.. 서해안, 새만금을 주목하라!

새만금~변산~고사포~격포~상록~모항 해수욕장 까지의 투자 벨트 형성

### ○검증된 추천 물건○

• 상가매수 유통장이 보이는 펜션부지

300평(전) - 평당 80만원

150평(전) - 평당 80만원

470평(당) - 평당 150만원(상가 및 펜션, 분할 가능)

• 격포 바닷가, 펜션, 모델 부지

500평 - 평당 180만원(대, 전, 모델, 등 포함)

• 전원주택 및 투자부지

1000평 - 평당 25만원(당)